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CJ온스타일(㈜씨제이이엔엠)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5.28	대면회의	9/10	1	4	14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정현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 권창범 위원, 박인서 위원, 양세정 위원, 이기헌 위원, 이수연 위원, 이정우 위원, 이창열 위원 (9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콘텐츠제작2담당 김은선님(1명)
- 경영진 외
  : 전략지원팀장 조희준님, 콘텐츠심의팀장 이은희님, FAST소싱팀장 김현정님, 리빙/서비스콘텐츠팀장 김영우님(4명)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8	18		1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8			18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1. 강연자의 외모 관련 언급은 방송의 재미를 위한 요소일지라도, 자칫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향후 주의가 필요함. (권창범 위원) 2. '뇌는 운동으로 단련할 수 없으니 이 제품을 먹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비과학적 설명이며, 시청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포 마케팅으로 보임. 또한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바뀐다', '망가진 뇌는 되돌리기 어렵다' 등의 표현은 공포와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마케팅 성격이 짙음. (박인서 위원) 3. 일부 공포감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상품을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임. (김선미 위원) 4. 방송 중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남용하고 있음. 일상생활 중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이	1-6. 출연자의 특성과 방송 맥락을 고려하여 사전심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음. (이은희 팀장) 1-6. 방송 중 발생하는 과도한 표현이나 오인 소지에 대해 제작진이 출연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 수위를 조절하고 있음. (김배경 팀장)	'26년 4월

	를 모두 경도인지장애 증상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함. (김정현 위원, 양세정 위원) 5. 노년층에게 기억력 감퇴는 삶과 직결된 두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진행자들이 이를 지나치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노년층 시청자로 하여금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양세정 위원) 6. 뇌 건강 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직후, 인지력 개선 기능성 제품을 바로 노출하는 구성 방식은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언급된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음. (박인서 위원)		
	7. 강연자가 복용 후기를 묻는 질문에 '단기간 복용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답한 것은, 제품의 기능적 효과가 미미함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상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박인서 위원, 양세정 위원)	7. 단기적 효과로 오인되지 않으면서, 제품의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재정비함. (김배경 팀장)	
	8. 방송 중 '서울대 연구진의 과학적 설계 및 배합'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통전문판매원은 서울대가 아님. 제품 표시 사항과 방송 내용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기헌 위원)	8. 서울대 연구진에 대해서는 개발 주체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유관 부서에 의견 전달하였음. (조희준 팀장)	
	9.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관련 내용이 방송 중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이기헌 위원)	9.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를 거친 결과를 준용하고, 당사의 사전심의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음. (조희준 팀장)	
	10. 방송 중 인용한 두 편의 논문에서 각각 학술지명과 논문명을 서로 다르게 생략하여 표기함. 첫 번째 연구는 게재 학술지 없이 논문 이름만	10. 학술지명, 논문명, 연구 기관명을 모두 명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유관 부서에 전달함. (조희준 팀장)	

	나와 있으며, 두 번째 연구는 논문 제목 없이 학술지명만 적시되어 있음.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며, 의도적인 정보 은폐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음. 외부 출처를 인용할 때는 논문명, 저널명, 발표 연도 등 핵심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명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김정현 위원)		
	11. 인용된 이스라엘 학술지의 경우, 의학 및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 공신력이 낮은 저널로 판단됨. 데이터의 편차가 큰 의학계 실험 특성상, 권위가 낮은 저널의 논문을 주된 근거로 삼는 것은 제품의 신뢰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검증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준이 낮은 저널에 의존한 것은 근거 자료 확보의 성의 부족이나 자료 선택의 오류로 보일 수 있음. (김정현 위원)	11. 방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저널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의견 전달함. (조희준 팀장)	
	12. 강연, 상담 등 비광고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 광고와 정보 제공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게스트와 쇼호스트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외부 공격이나 법적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선미 위원)	12.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매방송에 적합한 표현과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음. (남우종 담당)	
총 건수		14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9. 01.~ ’26. 08.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옥선희	58.07.18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前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	’24.09.01 ~’26.08.31
윤경원	65.04.30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	’24.09.01 ~’26.08.31
정영란	68.11.10	現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 상담실장	-	’24.09.01 ~’26.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company.cjonstyle.com/contact/viewer/committee1.asp)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선임기간)
위원장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경제단체	'23.09.24 ~'26.09.23
부위원장	김선미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23.09.24 ~'26.09.23
위원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9.24 ~'26.09.23
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OTT포럼	문화단체	'23.09.24 ~'26.09.23
위원	박인서	TV홈쇼핑협회 사무처장	TV홈쇼핑협회	물류·유통단체	'23.07.24 ~'26.09.23
위원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 보호단체	'25.09.24 ~'26.09.23
위원	이기헌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 보호단체	'23.07.24 ~'26.09.23
위원	이수연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25.09.24 ~'27.09.23
위원	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단체	'23.07.24 ~'26.09.23
위원	이창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장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소외계층단체	'23.07.24 ~'26.09.23
변 동 사 항					
위원		(전) (현)			신임
위원					해촉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1. 출연자의 개인적인 다이어트 성취와 제품의 기능을 연결한 것은 무리한 인과관계 설정으로 보임. (박인서 위원) 2. 살림 잘한다고 알려진 연예인, 주부, 유명 요리 유튜버들이 모두 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내용은 과장된 마케팅으로 판단됨. (박인서 위원)	1-2. 게스트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과장된 멘트를 하는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실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과장 멘트에 대해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김영우 팀장)			
	3. 물기 제거 등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해 보임. (이수연 위원) 4. 제올라이트는 에틸렌 가스 흡착 전 수분을 먼저 흡착하므로 물기 제거가 필요하나,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아쉬웠음. (이정우 위원)	3-4. 건조 시 오래 보관할 수 있음을 하단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시청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음. 방송 담당 PD와 논의하여 눈에 잘 띄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음. (김영우 팀장)	○		
	5. 방송 전반에 걸쳐 온도 관리나 보관 방법 등 실질적인 사용법을 언급하지 않고, 외관상 신선도 유지 결과만을 강조하여 아쉬웠음. (박인서 위원, 권창범 위원, 이수연 위원) 보관 조건에 대해 자막으로 안내되면 좋을 듯. (이수연 위원) 6. 배너 자막을 통해 '냉장/냉동,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OK'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자레인지 700W 주파수에 2분간 노출 후 변형 여부 확인 필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간은 2분 이내로 권	5-6. 시연 조건이나 보관 및 사용법에 대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보완하여 안내하겠음. (김영우 팀장)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장'이라는 주의 사항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작은 글씨로 표시되거나 빠르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짐. 중요한 유의 사항인 만큼, 쇼호스트의 멘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김정현 위원)				
	7. 시연에 오이, 양파, 양상추 등 상대적으로 더 오래 보관하여 섭취하는 식자재를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양세정 위원)	7-8. 자체 실험이 아닌,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치를 사용하다 보니 실제 소비자가 자주 보관하는 식재료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향후 보다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김영우 팀장)			
	8. 샌드위치, 바나나 등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식재료들로 시연하여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 김치, 잡곡 등 실제 오래 보관해서 먹을만한 식재료로 시연하는 것이 제품의 특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정우 위원)				
	9. 방송에 안내한 대로 세척 후 8~10회, 일주일에 1번 세척 한다고 가정하면 2~3달 후 버려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 아쉬웠음. (이정우 위원, 양세정 위원)	9. 그린박스 자체는 반영구적이 맞으며, 8~10회 사용은 그린백에 대한 안내임. 자막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 자막 검수를 꼼꼼히 하겠음. (김현정 팀장, 이은희 팀장)			
	10. 김치 냄새나 색이 물들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출연자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색 배임 DOWN' 등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이수연 위원)	10-11. 색 배임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았을 때, 오래 보관 시에도 다른 용기에 비해 색 배임이 거의 없다는 후기가 많았음. 단정적인 표현은 향후 보완하겠음. (김현정 팀장)			
	11. 방송 중에는 김치를 잠깐 담았다가 바로 세척하는데, 실제 김치를 오래 보관해도 색 배임이 없다는 시연이 보완되면 좋을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것으로 보임. (김선미 위원, 이창열 위원)				
	12. 비교 시연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닐과 비교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통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양세정 위원, 이정우 위원)	12. 공인시험기관(SGS)에서 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방송을 진행하는데, 시험기관에서 테스트 시 일반 비닐백과 그린박스를 비교하였고, 이를 차용하여 방송 시연도 진행하였음. 적절한 비교 시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음. (김현정 팀장) 1-12.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하여 방송하겠음. (김은선 담당)			